

당본풀이로 당본풀이 읽기

-제주 <세화 본향당 본풀이>의 사례-

정진희*

〈차례〉

1. 서론
2. 각편 채록 양상과 선편의 문제
3. <천жат도 본풀이>의 전형성
4. 입도 여신의 좌정담과 <백जू도 본풀이>의 대비
5. 문국성형 장수신의 좌정담과 <금상님 본풀이>의 거리
6.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제주 세화 본향당의 세 신격에 대한 본풀이 각각을 제주 당본풀이의 전형적, 유형적 서사에 견주어 살핌으로써 <세화 본향당 본풀이>를 당본풀이 서사의 일반성과 특수성이라는 맥락에서 고찰한 것이다. 세화 본향당의 본풀이는 본향당의 근본이 천жат도에 있음을 확인하는 <천жат도 본풀이>를 토대로, 입도 여신 백जू의 좌정 서사를 통해 초월성을 지닌 외부의 여성 신격이 본향당신과 위계적 관계로 내부화되는 양상과 논리를 드러내는 <백जू도 본풀이>, 외부에서 축출당해 입도한 금상의 좌정 및 돛제 설행 서사를 통해 외부의 장수신을 수용하여 내부화하는 양상과 논리를 드러내는 <금상님 본풀이>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였다. 송당 본향당 본풀이와의 영향 관계에 천착해 온 선행 연구의 시야를 확장하여, <세화 본향당 본풀이>는 제주도 당본풀이의 일반적 서사 관습을 활용하고 변주하면서 신앙 대상의 확대에 따른 수용과 조

*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강의교수

정의 신화적 논리를 구성해 간 본풀이임을 주장했다. 제주 당본풀이의 일반적 서사 체계나 관습을 통해 개별 당본풀이를 읽을 때, 특정 당본풀이의 의미가 보다 잘 드러날 수 있음을 보였다는 데에서 이 글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제주, 세화 본향당, 당본풀이, 외부, 내부화

1. 서론

<세화 본향당 본풀이>는 말 그대로 세화 본향당의 본풀이, 즉 제주도 구좌읍 세화 마을 본향당의 본풀이이다. 세화 본향당 의례에서 제향되는 신격은 천장도, 백जू도, 금상님 등 세 신위로, 이 세 신격에 대한 본풀이가 각각 채록되어 있다. 여러 신격이 하나의 본향당에서 제향될 때 그 신격들은 부부 관계인 남녀신인 경우가 많은데, 세화 본향당의 세 신격은 부부 관계인 백जू도와 금상님 뿐만 아니라 백जू도의 외조부라고 하는 천장도가 더 있다. 천장도와 금상님이라는 두 남신이 함께 제향받는다든 점이 자못 특이해 보이며, 여신 백जू도의 본풀이가 소천국이라는 남성 신격을 강력히 거부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이웃 마을과의 분리 및 단절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신격의 동좌 및 분리 양상에 대해 선행 연구는 마을 공동체의 역사가 신격들의 내력으로 서술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¹⁾ 제주 당신 체계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며,²⁾ 수렵과 농경의 정착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³⁾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언정, 선행 연

1) 고광민, 「당본풀이에 나타난 葛藤과 對立」, 『탐라문화』2, 1983.

2)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133~137면 참조. 이 책은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을 토대로 출판된 것이다.

3) 김현선·오정아, 「<세화리당신본풀이>의 식성 갈등 구조」, 『한국무속학』23, 2011 참조.

구는 세화 본향당에서 세 신격이 제향되고 그 본풀이가 각각 구연되는데 대해 통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신화 재편의 결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편 선행 연구는 <세화 본향당 본풀이>의 형성에 송당 본향당의 본풀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도 주목해 왔다. 주지하다시피 세화 본향당의 ‘백줏도’는 제주 신당의 뿌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송당 본향당의 여성 신격과 그 이름이 같고, 또 세화 본향당의 <백줏도 본풀이>에서 백줏도가 거부한 남성인 ‘소천국’은 송당 본향당의 남성 신격과 그 이름이 같다. 송당 본향당의 본풀이를 상기하게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세화 본향당의 금상님은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제물로 올리는 ‘돛제’를 받는데, 이 돛제를 받는 신격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김녕 궤내깃당의 신격 궤내깃도가 또 송당 본향당의 부부 신격인 소천국과 백주의 아들이다. 이처럼 <세화 본향당 본풀이>는 송당 본향당의 본풀이 및 그 子神에 대한 본풀이와 몇몇 접점이 발견되기에, <세화 본향당 본풀이>는 이른바 송당계 본향당 본풀이의 자장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논의되기도 했던 것이다.⁴⁾

제주도의 신당은 그 수를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신격의 직능이나 出自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 및 계열화가 가능하고,⁵⁾ 각 당의 의례를 통해 전승되어 온 본풀이 역시 기능적, 서사적 유사성에 따른 몇몇 유형이 부분적으로 추출된 바 있다.⁶⁾ 특정 신당의 당본풀이는 개별적임에 틀림없지만, 그 개별성은 당본풀이의 일반성이나 전형성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세화 본향당 본풀이>를 송당 본향당계 본풀이와의 관련 하에서 이해하려는 최근의 연구 경향은, 제주도 당본풀이의 전체적

4) 위의 글 및 조현철,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 2009 참조.

5) 제주도 당(堂)의 체계적 분류 및 유형화, 계열화에 대해서는 현용준,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문무병, 앞의 글,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등 참조.

6) 정진희,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체계를 엄두에 두면서 특정 본향당 본풀이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그 위상을 밝히려 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 시각을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당본풀이 서사의 일반성과 특수성이라는 맥락에서 <세화 본향당 본풀이>를 살피고자 한다. 선행 연구가 주로 백주와 소천국, 금상에 대한 서사에 주목하고 이른바 송당계 본풀이에 천착하여 그 관련 양상을 논의해 온 것과는 달리, 이 글은 세화 본향당의 세 신격에 대한 본풀이 각각을 제주 당본풀이 서사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이거나 유형적인 서사에 견주어 그 특성을 살피려 한다. 세화 본향당에서 제향하는 세 신위에 대한 본풀이를 <천장도 본풀이>, <백죽도 본풀이>, <금상님 본풀이>라 명명하고, 세 본풀이 각각을 제주 당본풀이의 ‘일반적’ 면모와 대비해 봄으로써 그 특성을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송당 본향당이 제주의 중요한 신당임은 틀림없지만, 여러 마을의 당과 당본풀이가 송당 본향당 및 그 본풀이의 단선적 분화나 확장만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세화 본향당 본풀이>에 대한 대비적 접근은, 송당계 본풀이에만 착목하는 시야를 확장하여 당본풀이 일반의 유형성이나 서사 관습, 당신앙의 보편성이나 일반성을 고려하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본풀이로 당본풀이를 이해하기, 다시 말해 제주 당본풀이의 일반성에 비추어 <세화 본향당 본풀이>의 특성을 확인하고 그 신화적 의미와 신화사적 의의를 밝히려는 것이 이 글의 연구 방법이자 연구 목적이다. 개별 본풀이의 특성을 여타의 본풀이에 견주어 드러냄으로써,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이나 판단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울러 <세화 본향당 본풀이>에 대한 연구사적 주요 관심사는 그것의 역사적 변천 과정 혹은 형성 과정인바, 이 문제에 대한 해명도 이러한 논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첨언해 둔다.

2. 각편 채록 양상과 선편의 문제

주지하다시피 장주근, 진성기, 현용준 등 세 선학은 일찍이 1950년대 중후반부터 제주도의 당본풀이를 채록하고 정리하였다.⁷⁾ 세화 본향당의 본풀이도 예외없이 이들에 의해 채록되었다. 장주근은 세화리 본향당의 매킨심방이자 동시에 송당 본향당의 매킨심방이기도 했던 고대중 심방의 구연본을 채록하여 남겼고, 진성기는 고대중 심방뿐만 아니라 조산옥, 양기정, 김병생, 강자생, 안사인 심방의 구연본을 채록했다. 안사인 심방이 구연한 본풀이를 제외하면 진성기가 채록한 각편은 구좌읍(채록 당시에는 구좌면) 심방이 구연한 각편들이다. 현용준은 이달춘 심방 구연본을 채록했는데, 이달춘 심방을 제주시 건입동의 심방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달춘 심방은 이달춘-안사인-김윤수로 이어지는 계보가 잘 알려져 있는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의 매킨심방이다.

어느 곳의 심방이 구연했는가를 기준으로 하면 세화 본향당의 본풀이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세화 본향당이 있는 세화의 자료, 세화 마을 인근의 구좌읍(면) 자료를 각기 세화 자료, 세화권 자료로 묶고, 그 이외 제주시 심방이 구연한 자료를 비세화권 자료로 묶는다.

자료 번호	분류	구연자 소재지	구연자	채록자	비고
1	I 세화	구좌 세화리	고대중	장주근	
2		구좌 세화리	고대중	진성기	

7) 장주근의 채록 성과는 『韓國の民間信仰』(東京:金花舎, 1973)에 처음 정리되었으나 한국 학계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다가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역락, 2001)로 출간되었다. 진성기의 성과는 『제주도 무가집』 I·II·III을 거쳐 『남국의 무가』(제주 민속문화연구소, 1968)로 정리되었다가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1991)으로 정식 출간되었다. 현용준의 성과는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개정판은 도서출판 각, 2007)에 집록되어 있다.

3		구좌 세화리	조산옥	진성기	
4		구좌 하도리	양기정	진성기	
5	Ⅱ 세화권	구좌 한동리	강자생	진성기	*신직, 직능 나열
6		구좌 연평리	김병생	진성기	
7	Ⅲ 非세화권	제주 용담동	안사인	진성기	*천장도 본풀이만 수록
8		제주 건입동	이달춘	현용준	

<표 1> 세화 본향당 본풀이의 채록지별 분류

위의 자료들 가운데 선행 연구에서 주된 분석의 대상이 된 것은 현용준이 채록한 이달춘 심방의 구연 자료다. 구연자인 큰 심방 이달춘 심방에 대한 신뢰,⁸⁾ 현용준·현승환의 표준어역에 따른 접근의 용이성,⁹⁾ 다른 구연본에 비할 때 풍부한 삽화 등이 이러한 선택의 요인일 듯하다.

그러나 <천장도 본풀이>, <백죽도 본풀이>, <금상님 본풀이>는 세화 본향당이라는 특정한 당의 본풀이이고 당본풀이는 원칙적으로 매인심방에 의해 배타적으로 전승되는바, 그 선편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자료가 세화 본향당의 매인심방인 고대중 심방이 구연한 자료가 아닐 이유를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이달춘 심방의 구연본은 고대중 심방의 구연본과는 달리 천장도의 제향 경위, 입도한 백주를 안내하는 당신의 존재, 천장도가 백주의 식성을 확인하는 삽화 등이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풍부한 서사가 선편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외려 그것은 ‘문서’가 많고 연행력이 좋은 큰 심방의 구연본이 지니는 특성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매인심방의 구연본에는 없는 이야기가 다른 지역 큰 심방의 구연본에는 등장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오히려 제기되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세화 본향당의 매인심방인 고대중 심방이

8) 김현선·오정아, 앞의 글, 33면 참조.

9) 예컨대 조현설, 앞의 글, 461~462면은 자료 8의 표준어역인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1996의 이달춘 본을 기준으로 다른 자료를 참조하고 있다.

구연한 <자료 1>과 <자료 2>를 우선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두 자료는 한 심방이 구연한 것으로 삽화의 구성이나 서사의 흐름은 거의 같고, 구비적 특성상 구체적인 표현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함께 고려할 자료는 역시 세화 마을의 심방인 조산옥 심방이 구연한 <자료 3>이다. 조산옥 심방은 현용준이 채록한 세화 일렛당과 돈짓당 본풀이의 구연자인바, 본향당의 맏인 심방은 아니지만 세화 마을 신당의 내력을 알고 있었던 심방이었음이 짐작된다. <자료 3>은 백जू도가 입도하여 세화 본향당에 좌정하기 전 ‘허선장집 따님아기’와 같은 인물과 따로 상단골을 맺는 삽화가 없다는 점, 백जू도가 소천국을 떨쳐 버리고 천жат도를 찾아온 후 천жат도가 소천국을 징벌하는 삽화가 없다는 점, 금상이 입도할 때 제주의 삼천선비가 이를 방해했다는 삽화가 보이는 점 등이 고대중 심방의 <자료 1>, <자료 2>와는 다르다. 세화 본향당 당백심방의 구연본인 <자료 1>과 <자료 2>, 역시 세화 심방의 구연본인 <자료 3>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되, <자료 3>에서 확인되는 <자료 1>, <자료 2>와의 차이를 함께 고려해 보기로 한다.

3. <천жат도 본풀이>의 전형성

고대중 심방이 구연한 <자료 1>과 <자료 2>의 <천жат도 본풀이>는 ‘서사’라 이를 만한 사건이 별달리 없다. <자료 3>을 포함한 세화의 자료와 인근 세화권의 자료들 모두 이런 점에서 유사하다. 천жат도의 출자, 본향당 신격으로서의 직능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신격의 겉모습과 관련되는 단어들이 나열되기도 한다. <자료 1>의 경우를 예로 든다.

한로영산 지질개 백록담 무이동자 유작후 솟아나
천자 유합 동문선십 통달하고
소슬와지 백망근 백철영

안은 벼운 금책 줍이 벼운 금붓대
삼천장 베릿돌에 일천장 먹을 골려
올라 옥황 문세 느려 이문세 호적문세 장적문세
낱은 낱은 생산 잡고
죽는 낱은 물고 낙점 좇이흐던 천즈또¹⁰⁾

이렇게 구성되는 당본풀이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일찍이 현용준이 태동형, 기원형으로 분류한 당본풀이에 해당되며,¹¹⁾ 제주도 당본풀이 가운데에는 당의 제의와 당신의 내력, 당의 영험에 대한 내용이 교술적 양식으로만 표현되는 당본풀이가 적지 않다.¹²⁾

그런데 <천жат도 본풀이>의 여러 채록 자료 가운데에는, 교술 아닌 서사가 확인되는 자료도 있다. 非세화권 자료인 안사인 심방의 구연본(<자료 7>)이 그것이다. 세화 본향당에서 제향되는 세 신격에 대한 본풀이 중 천жат도에 대한 본풀이만이 <천즈당>이라는 이름으로 채록된 자료인데, 천жат도가 인간 세상에 좌정하여 제향을 받게 된 경위가 비교적 상세하다. 그런데 그 서사 또한 별반 특별한 것은 아니고 제주도 당본풀이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전형적 서사에 가까운 것이다. 신격이 좌정할 만한 곳을 찾아갔으나 자신을 알아보고 제향하는 이가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흥험을 주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결국에는 제향을 받음으로써 당의 신격으로 좌정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제향 경위담’으로 분류할 만한 자료이다.¹³⁾

또다른 非세화권 자료인 이달춘 심방 구연본(<자료 8>)에도 <자료

10) 장주근, 앞의 책, 219면.

11) 현용준(1992), 앞의 책, 75~76면 참조(초출: 현용준, 『堂神話의 Motif와 基本形式』, 『國文學報』2, 1964).

12) 정진희(1999), 앞의 글, 17면.

13) 제주 당본풀이의 제향 경위담에 대해서는 정진희(1999), 앞의 글, 21~31면 참조. 제향 경위담은 ‘제의 결혼->제의 요구->제의 실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의 요구의 단계에서 신격과 단골 사이의 의사 소통이 실현된다.

7>만큼의 서사 형태로는 아닐지라도 제향의 경위가 제시되어 있다.

(…) (가)옥황의 맹을 받아 상서화리 손드랑므르 떠렁췌므르 느려사서 좌
정하려 하니 (나)굿동장 굿좌쉬 당소미 당공소원 거느리고 팔간 장방 집을
지어 좌정한 후, (다)마은 으뜸 상단골 서른 으뜸 중단골 시물으뜸 하단골
만민 수한 단골,(…)14) (가, 나, 다 표기는 필자)

인용문의 (가)는 천잣도가 ‘상서화리 손드랑므르 떠렁췌므르’라는 곳에
좌정하려 했다고 하고, 그 다음 (나)는 천잣도가 ‘굿동장 굿좌쉬 당소미
당공소원’ 등의 사제자를 거느린 신당에 좌정했음을, 또 그 다음 (다)는
천잣도를 모시는 단골들이 많음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천잣도가 ‘상
서화리’에 좌정하여 단골들의 제향을 받는 당신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이다. 제향 경위담 서사의 ‘제의 요구’ 과정이 생략되는 한편, 제의의
부재 혹은 결손 상태에서 제의가 실현되는 제향 경위담의 전형적 서사가
교술적 표현으로 드러나 있다.

非세화권의 자료 두 편은 세화 본향당의 형성 기원을 ‘천잣도’라는 신
격과 단골들의 관계 맺음에서 찾음으로써, 세화 본향당 신앙의 중추가 다
름아닌 천잣도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세화나 인근 세화권 심방이 아
닌 非세화권 심방들에게 세화의 본향당 신격이 다름아닌 ‘천잣도’로 인식
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화 및 세화권의 자료에서 천잣도의 제향 경위담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도 천잣도의 신격적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에 좌정한
신과 그 신을 모시는 단골들이 관계를 맺게 된 시원을 환기하면서 제향
의 경위를 재현하는 당본풀이의 제향 경위담은, 특정 신당에 대한 신앙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 신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 집단의 공동체성
을 새삼 ‘강조’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15) 이런

14) 현용준(2007), 앞의 책, 571면.

15) 정진희(1999), 앞의 글, 31면.

점을 고려하면, 세화와 세화권의 심방들이 천жат도를 제향하게 된 경위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굳이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천жат도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성이 공고했다는 의미일 터다. 따라서 천жат도에 대한 세화 및 세화권의 본풀이는 非세화권의 본풀이에 비할 때 천жат도의 신격적 위상에 대한 인식은 동일하되, 그 신성성의 정도가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다.

<천жат도 본풀이>가 세화 본향당의 다른 본풀이에 비해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천жат도의 신격적 위상까지 낮잡아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반대로, 신격의 이름과 출자와 직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정도로 천жат도의 신격적 위상이 높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жат도를 묘사할 때 종종 문신(文神)적 외양이 강조된다고 해서, 천жат도가 세화 마을 신앙 공동체에서 후대적으로 삽입된 신격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신격은 고유하거나 오래된 것이되, 글공부에 가치를 두는 후대적 사고가 신격의 외양 표현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커 보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천жат도 본풀이>는, 천жат도가 세화 본향당을 둘러싼 신앙의 중추이자 그 신앙 공동체 성립의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

4. 입도 여신의 좌정담과 <백जू도 본풀이>의 대비

<백जू도 본풀이>의 서사적 핵심은 ‘제주 밖’에서 출생한 신격이 ‘입도’하여 세화 본향당에 좌정하였다는 것이다. 제주 밖 타지에서 출생한 신격이 입도하여 신격으로 좌정한다는 내용의 당본풀이는 다른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보편적 당본풀이 서사 중의 하나이다. 특히 외부에서 입도한 ‘여성’ 신격의 경우, 그 좌정의 전형적 양상은 다음의 두 가지다. 하나는 입도한 여신이 좌정처를 찾아 그 곳 사람들과 당신-단골 관계를 맺은 후 좌정하는 것이고,¹⁶⁾ 다른 하나는 입도 여신이 토착 남신과의 혼인 관계를 통해 특정 신당에 좌정하는 것이다.¹⁷⁾ 흥미롭게도, 세화 본

향당의 <백죽도 본풀이>에서 입도한 여신 백죽도는 이 두 가지의 좌정 양상을 모두 보여주는 한편 또 전형적 양상과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지면의 한계로 <백죽도 본풀이>를 모두 옮겨오기는 어려우니, 우선 고대중 심방이 구연한 <자료 1>과 <자료 2>를 대상으로 주요 사건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자.

- (가) 외부 출생
- (나) 용궁 부술 획득
- (다) 삼천선비 일만거사와의 갈등
- (라) 입도
- (마) 상단골 맺음
- (바) 명동 소천국과의 갈등
- (사) 세화 본향당 좌정

이 가운데 (마)는 입도 여신이 좌정처를 찾아 단골을 맺고 좌정하는 양상과, (사)는 입도 여신이 토착 남신과 관계를 맺고 좌정하는 양상과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마)는 입도 후 단골을 맺은 여신이 그 자리에 머물러 좌정하지 않고 이동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며, (사)는 입도 여신이 혼인에 의한 부부 관계가 아니라 ‘외조부-외손’이라는 혈연 관계를 근거로 토착 남신과 함께 좌정한다는 점에서 변별적이다. (바)도 입도 여신과 토착 남신의 관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 혼인 관계로 토착남 소

16) 구체적 사례로는 현용준(2007), 앞의 책, 552면의 김녕 큰당 본풀이 참조. 조천의 정충부인, 김녕의 관세전부인, 온평의 맹호부인은 강남천자국 출신으로 제주에 입도하여 각각 좌정한 당신들이다.

17) 외부의 여신이 홀로 입도하여 제주의 토착 남신과 혼인하여 좌정하는 경우, 제주 토착의 남신(혹은 남성)이 외부로 간 후 그 곳의 여신(혹은 여성)과 혼인하고 입도하여 좌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의 혼인은 종종 배우자 한 쪽이 다른 배우자를 축출함으로써 벌어지는 것으로 귀결된다. 혼인 후 별거로 이어지는 당본풀이의 하위 유형에 대해서는 정진희, 『제주도와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신화에 보이는 입도녀·토착남 혼인 화소의 비교 고찰』, 『구비문학연구』28, 2009, 245~248면 참조.

천국과 맺어짐직한 입도녀 백주가 소천국을 거부한다는 점, 또 그 거부도 보통은 입도 여신과 토착 남신의 혼인 이후에 일어나는데 그와는 달리 애초에 결연 자체가 거부된다는 점이 전형적이지 않다.

요컨대, <백궂도 본풀이>는 입도녀 백주가 입도녀 본풀이에 나타나는 두 가지 좌정 양상(홀로 단골을 맺어 좌정하는 독좌, 토착 남신과 관계를 맺어 좌정하는 동좌)을 모두 보인다는 점, 소천국이라는 토착 남신과의 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한편 또다른 토착 남신 천갓도와는 혼인이 아닌 혈연 관계를 계기로 토착 남신의 버릇물이나 세숫물을 떠놓는 역할을 맡아 동좌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백궂도의 좌정도, 토착 남신과의 동좌도 두 차례의 시도 끝에 완결되고 있는 것이다.

백궂도의 초월성, 즉 신격으로서 지니는 신이한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확인된다. 입도 여신은 보통 ‘제주 밖’에서 태어난 인물이라는 점이 신격적 초월성의 근거가 된다. 가령 조천의 정중부인, 김녕의 관세전부인, 온평의 맹호부인은 강남천자국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입도하여 좌정하며, 제주시 다락궂당의 은기선승 늦기선승도 강남 출생으로 입도 후 토착남신과 부부 인연을 맺어 좌정한다. 용왕의 딸 용궁녀가 제주 출신인 남신을 따라 입도하여 좌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때에도 출생지의 외부성이 신격적 초월성의 토대가 된다. <백궂도 본풀이>에서 백궂도 역시 출생지는 외부로, 많은 입도 여신들과 공통적이다.

그러나 백궂도의 신격적 초월성은 출생에 의해서 보증되는 게 아니다. 백궂도는 집에서 쫓겨나 (나) 단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궁’에서 ‘부술’을 ‘획득’한다.¹⁸⁾ <백궂도 본풀이>에서 그 부술은 백궂도를 무시하는 삼천선비를 징벌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처음 단골을 맺은 인간에게 주어지기도 한다. 용궁이라는 외부에서 획득한 초월성이 백궂도가 지니는 초월성의 근거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백궂도의 초월성은 ‘출생의 외부성’에 더하여 ‘획득된 외부성’으로 확보되고 있는바, <백궂도 본풀이>에서 백

18) 백주가 획득한 부술은 종종 용궁의 삼촌들이 내어 준 ‘주머니’라는 형태로 형상화된다.

굿도가 지니는 신격으로서의 초월성 역시 두 차례에 걸쳐 드러나되 두 번째에 더욱 확고해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외부에서 출생했지만 또다른 외부에서 초월성을 획득하고, 입도하여 단골과 관계를 맺지만 그 곳에 좌정하지 아니하고 이동하여 토착 남신과 함께 좌정하며, 혼인으로 맺어지는 토착 남신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혈연에 기반한 토착 남신과의 관계를 찾아 좌정하는 백굿도는, 당본풀이의 전형성을 보여주되 연이어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 당본풀이로서의 보편성이나 일반성 측면에서 볼 때, <백굿도 본풀이>는 당본풀이의 전형적 면모와 더불어 특수한 모습까지도 보이는바, 이를 <백굿도 본풀이>의 ‘양면성’ 혹은 ‘복합성’이라 할 수 있을 터다.

이러한 양면성 내지 복합성은 <백굿도 본풀이>라는 서사만이 아니라 백굿도의 신격적 속성에서도 확인된다. 당본풀이에 등장하는 신격은 어디에서 비롯했는가에 따라 제주 내부의 신과 외부의 신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제주에서 ‘숫아난’ 신격과 타지에서 제주로 입도한 신격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백굿도는, 제주 밖에서 태어나 입도한 외부의 신격이면서 동시에 한라산에서 숫아난 제주 내부의 신인 천잣도의 외손이라는 점에서 혈통상으로는 내부의 신격이기도 하다. 백굿도가 지니는 이러한 양면성과 <백굿도 본풀이>에 보이는 당본풀이 서사의 일반성 측면에서의 양면성 내지 복합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입도한 신격의 좌정은 외부에서 비롯한 존재가 내부의 신으로 자리한다는, 다시 말해 외부 신격의 내부화를 의미한다. 입도 여신의 좌정에 대한 두 유형의 당본풀이 서사는, 외부 여신의 내부화 방법을 각기 설명한다. 입도 여신은 이미 좌정해 있는 신이 없는 지역을 찾아가 사람들과 단골 관계를 맺고 당신으로 좌정하거나, 이미 좌정해 있는 토착 남신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제향받는 신격으로서의 거처를 마련한다. 전자는 좌정한 신격이 없는 좌정처를 탐색하여 이미 좌정처가 있는 다른 신들과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고 단독으로 좌정한다는 점에서 ‘병렬적 내부화’라

명명해 둔다. 이러한 입도 여신의 좌정은 내부에서 솟아난 신이 좌정처를 찾아 단골과 관계를 맺고 당신으로 좌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또 입도 여신이 좌정한 신당은 독립적인 신앙권을 형성하기에, 입도 여신이 좌정하여 형성된 신당은 다른 신당들과 병렬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할 때, 토착 남신과 혼인하여 좌정하는 입도 여신은 이미 존재하는 내부 신격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부의 신으로 좌정한다. 이는 다른 신격과 관계 맺음을 통해 내부화되는 것이기에 ‘관계적 내부화’라 할 수 있고, 특히 이 경우 입도한 외부의 여신은 내부 남신의 ‘배우자’로 자리하므로 ‘수평적 내부화’의 논리에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그렇다면 입도 여신의 세화 본향당에의 좌정 내력을 이야기하는 <백जू도 본풀이>는 어떤 내부화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본풀이인가? 백जू도는 이미 좌정해 있는 토착 남신 천갓도의 외손이라는 관계에 토대하여 기존의 당에 좌정하므로 관계적 내부화의 논리에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느 입도 여신이 토착 남신과의 혼인을 통해 수평적으로 내부화되는 데 반해, 백जू도는 소천국을 거부함으로써 수평적 내부화 과정을 따라가지 않고 ‘외할아버지’인 천갓도의 외손으로 좌정한다. 관계적 내부화이되, 부부 관계가 아닌 조손 관계로 내부화된다는 점에서 ‘위계적 내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백जू도 본풀이>는 외부 여신의 관계적 내부화, 특히 위계적 내부화의 논리로 이루어진 당본풀이인 셈이다. 많은 당본풀이에서 발견되는 병렬적 내부화나 관계적-수평적 내부화와 다른, 관계적-위계적 내부화 논리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 <백जू도 본풀

19) 부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과연 수평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적어도 당본풀이에서는 혼인한 여신과 남신 사이에 성별로 인한 위계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가령 혼인하여 동좌한 여신과 남신은 종종 별거에 이르는데, 이때 별거의 원인은 상대의 ‘잘못’ 때문으로 남신이 여신을 축출하기도 하고 여신이 남신을 축출하기도 한다. 수평적 관계의 부부가 상대의 잘못에 의해 다른 한 쪽이 우위에 서면서 수직적 관계에 놓이게 되고, 그것이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축출하는 별거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입도 여신과 토착 남신의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관계는, 다른 한 쪽이 잘못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수평적 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의 특성이다.

이러한 변별적인 내부화 논리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백궂도 본풀이>의 <자료 1>과 <자료 2>는 백궂도가 세화 아닌 다른 곳에서 단골들과 관계를 맺은 다음 세화로 들어와 좌정했다고 말함으로써, 백궂도가 병렬적 내부화를 거쳐 관계적 내부화를 겪은 내력을 명확히 서술한다. 그런데 백궂도의 관계적 내부화는 소천국과의 수평적 내부화를 거부한 끝에 천궂도를 상위로 하는 위계적 내부화로 종결된다. <백궂도 본풀이>에 나타나는 당본풀이 서사의 일반성 차원에서의 양면성 혹은 복합성은, 백궂도가 병렬적으로 내부화된 입도 여신이었다가 천궂도가 좌정한 세화 본향당으로 수용되면서 관계적-위계적 내부화 과정을 거친 여신이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본향당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 백궂도가 마을 신앙 체계에 수용되면서 이미 존재하는 본향당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가운데 이러한 위계적 내부화의 논리가 등장했을 가능성 역시 높아 보인다. 부모에게 축출된 외부출생의 여신이 입도하여 좌정하였다가 ‘소천국’이라는 토착 남신과 혼인하여 함께 좌정한다는 내용의 서사가 세화와 이웃한 평대 본향당 본풀이에 등장하며,²⁰⁾ 월정 본향당 본풀이에도 입도하여 좌정한 여신이 재차 ‘신산국’이라는 토착 남신과 부부로 좌정하는 사례가 보인다.²¹⁾ 세화와 인접한 평대나 월정 마을의 본향당 본풀이를 참조하면, 입도 여신의 내부화가 병렬적으로 이루어졌다가 다시 본향당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적으로 내부화된 것이 세화 마을에만 국한된 특수한 현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세화 본향당의 경우 그 관계적 내부화의 논리가 부부 관계로 표상되는 수평적 내부화가 아니라 조손 관계로 그려지는 위계적 내부화였다는 것이 특수한 양상이다. 백궂도가 소천국과의 수평적 관계를 거부하고 천궂도와의 위계적 관계를 자청했다는 내력을 통해, <백궂도 본풀이>

20) 장주근, 앞의 책, 218~219면.

21) 현용준(2007), 앞의 책, 562~566면.

는 소천국이 좌정한 갯마리(평대) 본향당과 세화 본향당이 다르다는 배타적 변별성을 강조하는 한편 백जू도가 세화의 본향당신 천갯도와 위계적 관계로 엮여 내부화한 존재임을 드러내고도 있는 것이다. 소천국에 대한 백जू도의 거부, 천갯도에 의한 소천국의 징벌 등으로 갯마리에 대한 세화의 우월성을 드러낸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요컨대 <백जू도 본풀이>는 백जू도라는 신격의 역사, 달리 말하면 백जू도라는 외부 여신이 세화 마을 본향당에서 제향받는 신으로 내부화되기까지의 내력을 풀이한 신화라고 할 수 있다. <백जू도 본풀이> 서사의 양면적, 복합적 특이성은 세화 마을 신앙사의 이러한 특수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 서면, 당맨심방 고대중 심방의 <자료 1>, <자료 2>의 <백जू도 본풀이>가 같은 세화리 심방 조산옥 심방이 구연한 <자료 3>의 백जू도 본풀이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할 여지가 생긴다. <자료 3>의 <백जू도 본풀이>는 백जू도가 입도 후 단골을 맺는다는 좌정 양상이 없고, 천갯도가 소천국을 징벌하는 삽화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백जू도에 대한 신앙의 역사, 평대 본향당에 대한 세화 본향당의 우위 등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대신 <자료 3>의 <백जू도 본풀이>는 고대중 심방의 구연본에는 없는 백जू도가 내린 홍험을²²⁾ 서술하고 백जू도가 ‘무색옷’을 가지고 온 ‘맑고 맑은 조상’임을 밝힌다. 영험한 능력을 지닌 백जू도의 신성성에 대한 강조와 관심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본향당의 당맨심방인 고대중 심방의 구연본은 세화 본향당의 역사에, 돈짓당과 일렛당 등 특수 직능을 지닌 신당의 본풀이를 구연하는 조산옥 심방은 신의 영험에 더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편차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²³⁾

22) 백जू도는 백जू도가 여자이기 때문에 제주로 가는 배에 태울 수 없다는 선주의 말에 부채를 내어놓고 바람을 일으켜 항해를 방해한다.

23) 자료별 동차 양상을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非세화권의 <백जू도 본풀이>인 <자료 8>의 이달춘 심방 구연본은 세화 및 세화권 자료와는 달리 백जू도가 입도 후

5. 문국성형 장수신의 좌정담과 <금상님 본풀이>의 거리

<금상님 본풀이>는 송당 본향당신의 아들이자 궤내깃당의 당신 궤내깃도에 대한 본풀이와 종종 대비되어 왔다. 연구사적 흐름에서 보면 <궤내깃도 본풀이>는 대표적인 송당 본향당신의 子神 신화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기실 제주 당신앙과 당본풀이의 세계에서 송당 본향당의 子神을 대표하는 신격의 이름은 ‘문국성’이지 궤내깃도가 아니며,²⁴⁾ <궤내깃도 본풀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송당 본향당신에게 쫓겨남-용궁녀와 혼인-무궁 세움-용궁녀와 함께 귀환-좌정’의 서사는 <궤내깃도 본풀이>만의 고유한 서사도 아니다. 예컨대 제주 내왓당의 본풀이나 토산 웃당의 본풀이 역시도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축출당했다가 용궁 사위가 된 후 무궁을 세우고 다시 돌아와 좌정한 송당 본향당의 아들 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궤내깃도 본풀이>는 이러한 송당 본향당의 아들 신에 대한 본풀이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어야 하며, 대비의 대상이 되는 당본풀이가 유독 김녕 궤내깃당의 본풀이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여기에서는 이러한 본풀이들을 통틀어 ‘문국성형 본풀이’라 부르기로 한다.

<금상님 본풀이>와 문국성형 본풀이는 유사한 삽화나 화소를 여럿 공유하고 있다. 태어난 곳으로부터의 축출, 입도, 무궁, 혼인, 좌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두 본풀이는 화소나 삽화의 순서가 동일하지 않으며, 각 화소 및 삽화의 서사적 기능도 같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령

조천 정중부인을 찾아가 길 안내를 부탁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주도 당 신앙 체계에서 조천 정중부인이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는 삽화와 할 수 있는데, 세화와 세화권의 자료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전무하다. 외부인들이 조천항을 통해 입도하곤 했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인식이, ‘외부에서 입도한 여신을 안내하는 조천관 정중부인’이라는 형상으로 큰 심방 이달춘의 구연본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4) <궤내깃도 본풀이>가 송당 본향당의 대표적인 子神 본풀이로 떠오른 배경과 연유에 대해서는 김진하, 『송당 신화의 분화와 새로운 영웅 문국성의 탄생』, 『탐라문화』30, 2007, 21~27면 참조.

<금상님 본풀이>에서 금상님의 입도는 외부에서 출생한 외부자의 ‘입도’ 입이 분명하나, 문국성은 내부에서 축출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기에 문국성의 입도에는 금상님의 입도에는 없는 ‘귀환’의 의미가 있다. 또 금상님은 외부에서 축출되어 내부로 입도하는 데 반해, 문국성은 외부인 용왕국에서 축출되었을 뿐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내부로부터도 축출되었다. 금상님에게 축출은 입도의 계기이지만, 문국성에게 축출은 입도 뿐만 아니라 출도의 계기이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 금상님의 혼인은 입도 이후에야 이루어지지만, 문국성의 혼인은 입도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것도 차이 가운데 하나이다.

<금상님 본풀이>와 문국성형 본풀이는 본풀이 서사의 유형성 측면에서만 보자면 그다지 유사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두 본풀이를 견주는 논의가 적절할 수 있는 까닭은, 금상님과 문국성이 모두 ‘장수신’으로 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금상님은 나면서부터 장수의 자질을 지니고 태어나 나라를 위한 무공을 세우고, 문국성은 축출 이후 찾아간 용왕국에서 획득한 능력으로 무공을 세운다. 이들의 입도 장면에 보이는 장수적 면모는, 금상님과 문국성이 장수신이라는 신성을 지닌 채 제주에 입도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문국성은 ‘버릇없음/불효’ 때문에 제주 밖으로 축출되고, ‘대식’ 때문에 용궁에서도 쫓겨난 존재다. ‘버릇없음/불효’는 아버지로 표현되는 질서 안에 수용되지 못한다는 뜻이고, 주지하다시피 ‘대식’은 제주 설화 세계에서 영웅성을 지녔으나 그 영웅성이 오히려 쓸모가 없게 된 이른바 ‘장사’의 대표적 속성이다. 이런 문국성이, 용왕국에서 얻은 능력을 바탕으로 무공을 발휘하게 되자 비로소 귀환하여 자기 자리를 찾아 좌정하게 된다. 그러니 부모의 축출로부터 비롯된 문국성의 여행은, 사실은 제주의 신격으로 좌정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탐색과 획득의 여정이었다. 이로 인해 문국성은 장수신으로서의 새로운 신성에 기반한 새로운 당에 좌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²⁵⁾

문국성은 장수신적 속성을 갖추으로써 제주의 당신으로 좌정할 수 있

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금상님의 장수신적 속성은 제향 대상으로서의 좌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금상님은 세화 본향당의 천잣도를 찾아가 좌정 여부를 타진하는데, 이 때 천잣도가 확인하는 것은 금상님의 식성이다. 금상님이 지니는 신격적 속성을, 그 식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금상님은 ‘술도 장군, 밥도 장군, 제육 안주도 한 마리 통째로 먹는다’ 자신의 식성을 말하는데, 결국 이 때문에 동좌를 거부당한다. 술도 밥도 장군으로 먹는 식성을 지닌 장수신은 세화 본향당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이다.

장수신 금상님이 세화 본향당에서 제향받는 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식성을 포기한 채 세화 본향당의 또다른 신 백죽도와 혼인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입도한 금상님이 세화 본향당에 좌정할 수 있었던 것은, 식성 포기를 전제로 한 관계적-수평적 내부화²⁶⁾의 결과였다.

세화리의 조산옥 심방이 구연한 <자료 3>, 연평리의 김병생 심방이 구연한 <자료 6>의 <금상님 본풀이>는 장수신 금상님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자료 3>에서는 제주의 삼천 선비가 군사를 이끌고 입도하는 금상님의 배를 입김으로 멀리 보내어 사라봉으로 입도하는 것을 막고, <자료 6>에서는 천잣도가 ‘외국 장수’의 침입을 감지하고 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람을 일으킨다. 장수신 금상님의 입도는 삼천 선비나 천잣도의 시각으로는 ‘우리 국을 망하게 하려는’, ‘우리 국을 치려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금상님은 장수신적 속성을 버리고서야-자신의 식성을 버리고서야- 내부

25) 게다가 문국성은 용왕녀와 함께 귀환한다. 주지하다시피 용왕녀는 종종 아이들을 돌보는 일렛당의 신격으로 분화해 간다. 문국성형 인물과 용왕녀가 좌정한 당은, 문국성의 부모 소천국과 백죽도가 좌정한 송당 본향당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신성으로서 믿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신앙의 변화가 문국성형 본풀이의 출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26) 이 때의 수평적 관계는 물론 백죽도와 관계를 말한다. 백죽도와 천잣도 사이에는 위계적 관계가 성립하므로, 금상 역시 천죽도와는 위계적 관계에 놓인다.

의 신격으로 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 제향을 통해 기대되는 금상님의 신격적 위력은 그의 장수 신적 속성에 기반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료 6>에서 금상님의 입도를 저지하기 위해 천잣도가 일으킨 하늬바람 앞에, 금상님은 자신의 ‘용맹’을 두었다가 무엇에 쓰겠느냐며 셋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입도에 성공한다. 셋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금상님의 ‘용맹’, 다시 말해 장수신적 속성이었다. 그러니 금상이 금상님으로 제향되기 위해서는 내부화를 위해 포기된 식성을 제한적으로나마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활용된 의례적 기제가, 바로 금상님만을 위해 행해진 ‘돛제’다. <금상님 본풀이>는 식성을 포기하고 여위어만 가는 금상을 위해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돛제를 시행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본향당의 주된 신격인 천잣도를 상위로 하는 위계 하에 금상님을 내부화하는 동시에²⁷⁾ 금상님의 신격적 속성을 신앙적으로 향유하려는 의도²⁸⁾ 금상님을 위한 돛제로 구현되는 것이다.

돛제는 케내깃도나 금상님과 같은 장수신에게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월정 서당이나 평대 수테깃당에서는 심지어 여신도 돛제의 대상이 된다. 돛제는 장수신을 위한 의례가 아니라는 말이다. 강정식은 돛제가 마을 공동 의례의 대상이 되는 본향당이 아니라 개별적 의례와 수시적 의례를 받는 非본향당의 신격을 위해 고안된 의례임을 지적한 바 있다.²⁹⁾ 이러한 지적을 수용한다면, <금상님 본풀이>는 백जू도와 의 혼인을 통해

27) 돛제를 받는 신격은 돼지고기가 금기되는 신격에 비할 때 위계적으로 하위의 신으로 여겨진다. 유요한, 「신들 사이의 영역 구별, 신과 인간의 영역 구별: 제주 토착 종교의 정령 개념에 관한 연구」, 『종교와 문화』 25, 2013, 37~43면 참조.

28) 현승환은 세화 마을에서 금상님을 위한 돛제는 혼인식 직전에 주로 행해졌으며, 이는 금상님이 나쁜 액을 막아준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고하고 있다. 현승환, 「제주도 신화와 공동체 그 현대적 변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22, 2006, 258~259면 참조. 금상님의 장수신적 면모는 횡액과 싸워 그것을 물리친다는 차원에서 환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9) 강정식, 「당신본풀이와 돼지고기 금기」, 『한국구비문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세화 본향당의 주신 천갓도의 질서 체계로 내부화된 금상님의 내력을 말함과 동시에, 백जू도의 배려로 돛제를 받게 된 금상님 이야기를 하면서 본향당의 통제와 주선 하에 그 장수신적 속성의 신앙적 실현이 돛제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전하고 있는 셈이다. 금상님이 돛제를 받는 신으로 따로 좌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당에 함께 모셔지므로, <금상님 본풀이>는 금상님이 돛제를 받은 후 정화 의례를 통해 그 식성으로 인한 부정을 씻어냄으로써 다시 본향당에 좌정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인다. 요컨대 <금상님 본풀이>는 외부의 장수신 금상이 어떤 내부화의 논리에 의해 어떤 신격으로 세화 마을에서 제향받을 수 있었는가를 상세히 전하는 좌정 내력담이라 할 수 있다.

장수신 본풀이로서 <금상님 본풀이>와 비교되는 문국성형 본풀이에서, 문국성은 내부 존재가 외부로 나가 특정한 신성을 획득해 귀환한 것이기에 신격의 내부화를 위한 논리가 따로 마련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금상님 본풀이>는 금상이 외부에서 유래한 신이기에 그 신의 내부화 논리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⁰⁾ <금상님 본풀이>는 식성을 포기하고 백जू와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세화 본향당에서 모시는 신격에 포함된 금상님의 내력을 통해, 신성의 전환을 통한 외부 신격의 수용 및 내부화의 과정을 드러낸다. 동시에, 금상님을 위한 돛제를 마련함으로써 포기된 신성을 제한적으로 회복하여 신앙적으로 수용하는 방법과 논리를 보여주고도 있다.

30) <금상님 본풀이>를 천갓도가 주관하는 체계가 백जू의 중재로 금상을 수용함으로써 재조정되는 이야기로 읽은 선행 연구가 있다. 허용호, 『세화리 금상님본풀이 연구』, 『제주도 본풀이의 세계』,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3. 논의의 방법이나 구체적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금상님 본풀이>에 외부 신을 내부화하는 논리가 드러나 있다고 보는 점에서 본고와 일맥상통한다.

6. 결론

당본풀이는 마을 신앙의 근본과 내력을 풀어낸다. 여러 마을 당본풀이가 서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주된 요인은 마을 신앙 역사의 유사성과 일반성이며,³¹⁾ 종종 눈에 띄이는 당본풀이의 독특한 모습은 마을 신앙 역사의 특수성 및 개별성과 관련되어 있다. 유사하지만 각기 개별적으로 전개되어 온 당신앙의 역사가 비슷하면서도 같지는 않은, 때로는 매우 독특하기까지 한 여러 당본풀이를 낳은 것이다. 이 글은 당신앙과 당본풀이가 이런 관계에 놓여 있음을 전제로, <세화 본향당 본풀이>라 통칭되는 세 신위에 대한 본풀이 각각을 다른 당본풀이에 견주어 그 일반성과 특수성을 가늠하고 본풀이의 신화적 논리를 읽어내고자 했다.

세화 본향당 본풀이의 근간은 <천장도 본풀이>이다. 본향당의 주신 천장도에 대한 본풀이는 교술적 요소만으로도 천장도에 대한 제향의 당위성을 보증한다. 세화 본향당은 원래 금상님을 모시다가 송당의 백जू도를 모셔와 형성되었다는 추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³²⁾ 적어도 본풀이가 풀어내는 세화 본향당 설립의 뿌리는 천장도에게 있다. 본풀이에서 묘사되는 천장도의 문신적 면모가 후대적 변모나 첨가일 가능성은 충분하나, 본풀이는 세화 본향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기원은 천장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서술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면서 심지어 폄훼되기조차 했던 <천장도 본풀이>의 가치는 결코 간과할 만한 것이 아니다.

<백जू도 본풀이>와 <금상님 본풀이>는 천장도를 제향하는 세화 본향당에 백जू도와 금상님을 함께 모시게 된 내력을 풀이한다. 백जू도와 금상님은 모두 제주 섬 밖 외부에서 입도한 신격으로, 본풀이는 그러한 신격들이 기존의 신격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내부화되었는가를 설명한다. 다

31) 신앙과 본풀이의 상관성을 사례적으로 논의한 선행 연구로 고희민, 『堂神들의 역할 분화와 그 신앙 형태』, 『비교민속학』1, 1985를 참조할 것.

32) 조현설, 앞의 글, 464면.

시 말해 외부에서 입도하여 세화 본향당에 좌정한 두 신격에 대한 본풀이는, 신앙 대상의 확대로 늘어난 신격들이 어떤 위상을 부여받아 마을의 신앙적 우주 속에 자리하게 되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백जू도 본풀이>와 <금상님 본풀이>에는, 외부 신격에 대한 신화적 내부화 논리가 담겨 있다. <백जू도 본풀이>에는 입도 여신 백जू를 통해 초월성을 지닌 외부의 여성 신격이 본향당신과 위계적 관계로 내부화되는 양상과 논리가, <금상님 본풀이>에는 외부에서 유래한 장수신을 수용하여 내부화하는 양상과 논리가 서사화되어 있다.

‘백जू’는 특정한 신, 예컨대 송당 본향당에서 모셔지는 여성 신격의 고유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 당본풀이의 세계에서 외부로부터의 입도 여신을 거듭 지칭하는 일반 명사에 가까울 수 있다. 따라서 세화 본향당의 <백जू도 본풀이>는 ‘백जू’라는 고유 명사를 지닌 송당 본향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해명될 수도 있지만, ‘백जू’라는 일반 명사의 한 사례라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의 논의는 물론 후자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세화 본향당 본풀이>는 천장도의 좌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통상적인 토착 남신과의 결연 대신 천장도의 외손녀임을 근거로 한 백जू도의 좌정, 백जू도와 혼인 및 돛제를 통해 천장도의 세화 마을에서 제향받게 된 금상의 좌정 내력을 차곡차곡 보태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세화 본향당 본풀이>는 세화 본향당 신앙의 변화를 보여주는 한편 당본풀이의 역사적 변천과 신화적 논리의 전개 양상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신화라고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화는 그 신화가 자리하고 있는 신화 체계 안에서 해석될 때 그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할 여지가 커진다. 여기에서는 <세화 본향당 본풀이>를 대상으로, 당본풀이의 일반성이나 전형성이라는 체계 안에서 그것을 고찰해 보았다. <세화 본향당 본풀이>는 송당 본향당 본풀이나 김녕 깨내깃당 본풀이에 한정되는 특수한 영향 관계에 의해 형성된 본풀이가 아니라, 제주도 당본풀이의 일반적 서사 관습을 활용하고 변주하면서 신앙 대

상의 확대에 따른 수용과 조정의 신화적 논리를 구축해 간 본풀이임을 추론해 낼 수 있었다. 당본풀이의 특수성을 당본풀이의 일반성을 통해 읽어낸다는 여기에서의 연구 시각과 방법이, 다른 당본풀이에 비할 때 서사가 특수하다고 하여 특히 주목되어 온 제주의 다른 당본풀이를 고찰하는데에도 유용하지 않을까 한다.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1~290면.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1~922면.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개정판, 도서출판 각, 2007, 1~859면.

2. 논저

- 강정식, 「당신본풀이와 돼지고기 금기」, 『한국구비문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29~55면.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246면.
 고광민, 「당본풀이에 나타난 葛藤과 對立」, 『탐라문화』2, 1983, 127~160면.
 고광민, 「堂神들의 역할 분화와 그 신앙 형태」, 『비교민속학』1, 1985, 155~180면.
 김진하, 「송당 신화의 분화와 새로운 영웅 문곡성의 탄생」, 『탐라문화』30, 2007, 5~36면.
 김현선·오정아, 「<세화리당신본풀이>의 식성 갈등 구조」, 『한국무속학』23, 2011, 31~63면.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1~428면.
 유요한, 「신들 사이의 영역 구별, 신과 인간의 영역 구별: 제주 토착종교의

- 정결 개념에 관한 연구, 『종교와 문화』25, 2013, 27~65면.
- 정진희,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1~102면.
- 정진희, 「제주도와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신화에 보이는 입도녀·토착남 혼인 화소의 비교 고찰」, 『구비문학연구』28, 2009, 241~271면.
- 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 2009, 455~482면.
- 허용호, 「세화리 금상님본풀이 연구」, 『제주도 본풀이의 세계』,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3, 33~47면.
- 현승환, 「제주도 신화와 공동체 그 현대적 변용 양상」, 『구비문학연구』22, 2006, 231~267면.
- 현용준,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1~533면.

Abstract

Sehwa Bonhyangdang Bonpuri as Examined through the
Narrative Conventions of *Dang Bonpuri* from Jeju Island

Jeong Jinhee

The present study examines *Sehwa Bonhyangdang Bonpuri* (stories or songs of the origins of the guardian deities worshipped at the Sehwa village shrine) in the context of both the generality and particularity of the narratives of Jeju Island's *dang bonpuri* (stories or songs of the origins of village guardian deities). It focuses on the *bonpuri* (stories or songs of the origins of deities) concerning the three deities worshipped at the Sehwa village shrine and examines these three *bonpuri* in comparison with both the typical and general patterns in the island's *dang bonpuri*. The *Sehwa Bonhyangdang Bonpuri* consist of: *Cheonjatto Bonpuri*, which confirms that the origin of the Sehwa village shrine lies in Cheonjatto; *Baekjutto Bonpuri*, which, through a narrative of settlement by *Baekju*, a goddess who has entered the island, reveals the patterns and logic of the internalization of an external female deity imbued with transcendence in a hierarchical relationship with *Cheonjatto* already worshipped at the Sehwa village shrine; and *Geumsangnim Bonpuri*, which, through a narrative of settlement and performance of *dotje* (shamanic sacrificial rites where an entire pig is offered) by Geumsang, who has been expelled from his original abode outside and entered the island, reveals the logic of the acceptance and internalization of an

external *jangsusin* (military general deity). The present study sees the *Sehwa Bonhyangdang Bonpuri* have been reorganized according to changes in the belief in *dang* (village guardian deities) based on the general narrative grammar of Jeju Island's *dang bonpuri*. Contrastive discussions on other *dang bonpuri* from the island, which have received attention as special narratives, based on the general narrative grammar of *dang bonpuri* likewise are expected to be valid.

Key Words : Jeju, Sehwa Bonhyangdang, *dang bonpuri*, outside, internalization